

계열화 확대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변화

일방적인 계약문화 이제는 변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29일 충남 아산에서는 전국에서 400여명의 육계인들이 모여 '전국육계인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육계인들은 '육계계열생산에서 불공정거래형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갖고 2002년 12월말 수준으로 계약조건을 환원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병아리 입추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계열화 사업에 대한 최후의 대응방침을 세우는 등 계열사들의 불공정한 계약서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그동안 계열화 사업이 확대되고 계약사육 참여농가들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요구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육계사육표준계약서의 필요성과 정착 노력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는 계열사들과 농가들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계약조건 변화와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줄어드는 농가소득

농가들은 계열화사업이 확대되면서 계열업체들이 사육수수료, 사료요구율 등 농가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회는 지난 2002년 이후 육계사육수수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자료에 의하면 사육비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농가의 수익과 직결된 사료요구율이 낮아지면서 계열농가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조사는 국내 12개 주요 계열업체들을 대상으로 2002년 계약서와 2004년 계약서를 비교한 것으로 2년전에 비해 사육비는 평균 139원(kg당)으로 1원정도 감소하였으나 사료요구율은 1.96에서 1.83



지난해 말 있었던 육계표준계약서 활용방안을 위한 실무자회의 모습(금년부터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문제해결에 노력해 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 특집 · 육계사육표준계약서 활용화 방안은 없는가!

으로 0.13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지수에 따른 수수료도 지수가 230~239일 때 6원으로 2년전에 비해 9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12월 기준 연료비도 ℓ 당 121원으로 7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들은 사료요구율이 낮아지면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발효제나 영양제를 추가로 사용하는 농가들이 늘어나면서 소득이 과거보다 줄어들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며, 병아리와 사료품질이 저하되어 사육여건이 더욱 열악해 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계열사들도 시세보너스를 신설하고 일부 회사에서는 출하시마다 적립금

도 마련해 놓는 등 생산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기 위한 변화도 나타났다.

계열화 사업의 확대

지난 2004년 육계인 대회 당시 계약사육 형태를 조사한 결과 일반사육 농가가 17.3%로 나타났고 계약사육농가는 82.7%(계약 68.5%, 혼용 15.2%)로 조사되었다. 경기도 지역은 계약사육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경북지역의 경우는 97%의 농가들이 계약사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적으로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점점 계열화 참여농가가 많아지면서 이제 계열화 사업이 정착단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계열화사업이 기반을 잡기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20년 전인 1985년, 당시 정부에서는 “닭 계열화 사업 촉진” 시책을 내놓고 당시 도계장을 운영하고 있던 8개의 계열업체에 2억5천만원씩의 도계장 현대화 자금을 지원하면서 가속도를 붙였다. 당시 정부는 닭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과 유통개선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농가와의 계약생산, 병아리 및 사료대 일부지원, 생계의 임대수매를 조건으로 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농가들도 계열화사업에 대해 이해를 넓히며 참여를 확대해 갔다. 그러나 계열화 사업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육계업체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다. 유사계열업체들의 등장으로 유통에 큰 혼란을 가져왔는가 하면, 계열사들의 부도에 따른 농가피해 증가, 폐사에 따른 책임소재, 결제지연 등 계열업체와 사육자간의 분쟁 등이 종종 발생하면서 계열화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표준계약서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표. 계열사 육계사육수수료 지급 현황(12개사 평균)

구 분	2002년(A)	2004년(B)	차이(B-A)
사육비(원/kg)	140	139	-1
약품비(원/수)	50	49	-1
상차비(원/kg)	8	10	2
갈집비(원/kg)	10	10	0
생산지수(230~239)	15	6	-9
연료비(12월, 500~550원/ℓ) 원/ℓ	128	121	-7
시세보너스(kg)	-	신설	-
적립금	-	일부적용	-
병아리값(원/수)	313	324	11
사료가격(원/kg)	277	339	62
육성율(%)	95	95	0
사료요구율	1.96	1.83	-0.13
출하체중(kg)	1.40-1.64	1.36-1.64	0
결제일수(일)	20.5	19.7	-0.8
휴약기간(일)	6.5	6.2	-0.3
휴지기간(일)	19.2	23	3.8
절식시간	3.4	3.2	-0.2
회전수/연	4.3	4.5	0.2
계급비	생산자	생산자	생산자
운송감량(%)	0.3-3.1	0.3-2.5	-0.6

(조사 : 본회경영지도팀, 2004년 12월 현재)

표준계약서 필요성 부각

지난해 육계인 대회 당시 44%의 육계인들이 육계사육표준계약서가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라 꼽을 정도로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는 계열화 참여 농가들이 늘어나면서 계열주체와 농가들간의 분쟁의 소지가 높아짐에 따라 공인된 육계사육표준계약서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말에는 계열업체와 농가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육계계열생산표준계약서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는 농림부 양계담당 사무관도 참석하여 육계사육표준계약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여준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사육농가들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계약서들은 회사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된 계약서로 사육수수료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고 병아리와 사료 등 원자재의 품질저하 현상 등 불공정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표준계약서의 활용을 강력히 제안하였다. 계열사들은 계열사별로 임의육계농가협의체 구성과 계약서에 관련된 회의를 정례화하여 계열사와 육계농가 간 대화로 불신을 풀어가는데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 계열사와 농가간의 계열화사업에 따른 계약서 활용방안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육계사육표준계약서 등장

지난 1990년 육계산업이 계열체제의 시대로 돌입하게 되면서 대한양계협회와 한국육계산업발전협의회에서는 육계계열생산표준계약서를 공표한 바 있다. 당시 협회에서는 1989년 국내에서 시행되는 계약서 내용과 선진 외국의 자료도 수집을

참고하여 3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계약서를 내놓게 되었다. 14조항으로 구성된 이 계약서는 비록 내용은 현재 계약서들 보다 간단하지만 계열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수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계약서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계열업체들이 이를 활용할 정도로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당시 내용중 육계출하 5시간전 절식, 출하후 5일 이내에 사육보수를 현금으로 지급, 계약시 병아리 임의 입추시 200% 배상, 입추전 20일 이상 휴지, 1.5kg 출하시(요구율 1.9) 195원지급 등이 언급되어 있으며, 쌍방간의 지켜야할 의무사항을 중심으로 계약서가 구성되어 있다.

이후 각 계열사마다 회사입장에 맞는 계약서를 만들어 사업을 확대, 계열화를 추진해 갔으며, 닭고기 수입증가와 육계불황이 찾아지면서 안정화를 바라는 육계인들이 계열화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H계열사 등 일부 계열사들은 '90년 말부터 절대평가제로 이루어지던 계약을 상대평가로 바꾸면서 새로운 계약문화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등 계약이 회사들마다 더욱 다양, 복잡해지면서 육계인들도 함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표준계약서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따라서 지난 2001년부터 양계농가, 학계, 연구계 등 관련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Task force팀을 운영하면서 12회에 걸친 보완작업을 거쳐 이듬해 2002년 9월 17일 '육계계열생산위탁표준계약서'를 발표하면서 대대적인 참여독려 및 홍보활동에 들어갔다. 27조항에 달하는 내용이 수록된 계약서는 계열사와 계약농가들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계약서로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나, 실제 실용화 단계에서는 계열사들의 참여부족과 농가홍보부족 등으로 현재까지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특집 · 육계사육표준계약서 활용화 방안은 없는가!

건전한 계약관계 유지, 노력

모 계열업체는 기존의 잘못된 계약조건을 개선하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는 등 변화를 꾀하고 있는가 하면, 상대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들은 우리나라가 가야할 계열화 방향을 상대평가에 기준을 두어 해석하기도 한다. 이처럼 각 계열사들마다 계약조건이 천차만별이고 회사 방침이 다르기 때문에 본회에서 공표한 표준계약서의 기준을 적용시키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며, 표준계약서는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아 계열업체들과 생산자들의 의지가 모아지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실용화된다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계약문화의 건전한 발전은 우리나라 육계산업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계열주체와 사육농가들이 신뢰를 쌓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표준계약서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최근의 업체별 계약서에는 그 동안 볼 수 없었던 시세보너스가 등장한 것이 특징이다. 시중가격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이에대한 가격을 적용시키는 것으로 이는 지난 2002년도 본회에서 공표한 육계사육표준계약서에 처음으로 제시된 내용을 계열사들이 응용하면서 계열사에서 표준계약서에 적지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결성될 계열업체와 농가들의 정례모임을 통해 표준계약서에 대한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정리 | 김동진 탐장
dj@poultry.or.kr



VN-ASIA 2005 태국 박람회 조사단 모집

1. 전시회기간 : 2005년 3월 16(수) - 3월18(금) 3일간 방콕 BETEC전시회장
2. 출 전 분 야 : 축산기자재 및 시설, 배합사료 기자재 및 생산품, 동물약품, 생명공학 관련제품
축산물 위생, 가공처리시설
(가축분뇨 및 환경기술/축사건축/농장정보 및 서비스/사료준비·저장·급이/유가공
축산기자재/도계가공·난가공/양어기술등)
3. 축산기술 세미 축종별 사육기술 세미나 및 교육프로그램 진행
4. 참 관 신 청 :

여행코스	여행기간	참가경비	방문지역
제1코스	05. 03월 15일-19일	690,000원	인천/방콕, 파타야/인천
제2코스	05. 03월 15일-20일	890,000원	인천/방콕, 파타야, 시엠펙/인천
제3코스	05. 03월 15일-20일	990,000원	인천/방콕, 치앙마이/인천

5. 참가경비 내역 : 보통석 왕복항공료, 일급호텔2인1실 사용, 일정상의 식사비용, 현지교통편(전용차), 가이드 동행
공항세 및 출국세, 일정상의관광비용, 해외여행 보험
단, 현지 가이드 및 운전기사의 팁, 전시회 관람일의 중식비 제외
4. 참가신청 방법 : 전화문의 바랍니다(참가 신청서와 일정표를 보내 드립니다)
전화 : 02-733-4114 담당자 : 최 희경 전무 019.9010.4117
참가 신청서 팩스 02-733-4113으로 보내시고 신청금 30만원을 구좌송금
조흥은행(예금주 : 글로벌여행사) 390-04-370290

(주)글로벌 여행사 축산여행부